광양시, 이순신대교 테마 거리 상징 關門 6월 완공

삼화섬과 마동지구 잇는 경관보도교 상부 다리 성공적 가설

광양시는 삼화섬과 마동지구를 연결하는 경관보도육교의 상부 다리가 성공적으로 가설되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의 상징적 관문(關文)이 열린다고 밝혔다.

오는 6월이면 캐노피와 전망대가 설치되고 경관 조명이 마무리되어 웅장하고 화려한 보도교가 선보이게 된다.

교통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전 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강화유리로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여 경관보도교로서의 미학을 추구했다.

또한, 전망대 돔(dome)에는 별자리로 광양의 가치를 표현하여 단순한 이동통로가 아닌 전망과 휴게공간을 갖춘 보도교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며 관문(關門)의 상징적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경관보도교가 완공되면 금호동과 중마동이 선(線)으로 연결되어 주민들의 보행평면을 늘리는 입체적 효과가 나타나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설계 중인 이순신대교 접속부와 마동IC접속교, 길호대교, 금호대교 등 4대 교량과 교량 간 9.4km의 해변을 잇는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경관보도교 준공 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보도교 명칭도 확정한다.

안형순 관광시설팀장은 "경관보도육교는 그 간 주로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금호동 주민들과 중마동 권역 주민들 간 물리적?정서적 원활한 소통과 함께 동광양권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발전까지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무지개다리와 경관보도육교, 그리고 4대 교량과 해변의 선이 연결된 야간경관이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야간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광양=황경석 기자

순천만 '흑두루미 날 기념 워크숍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달 3일까지

순천시는 순천시 시조(市鳥) 흑두루미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28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흑두루미의 날 기념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흑두루미의 날'은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순천시민 228명이 모여 만든 기념일이다.

시는 시민들과 함께 매년 28일을 흑두루미의 날로 기념하고 흑두루미를 비롯한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종 조류의 서식지 보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28일부터 1박 2일간 국내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워크숍을 순천만 에코촌에서 개최한다.

국내 생태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류, 황새, 저어새, 독수리 등의 잠재적 서식지 발굴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순천만습지 일원에서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날아라 흑두루미' '소원을 말해봐'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순천만 흑두루미 2800여마리를 비롯한 노랑부리저어새, 독수리 등 다양한 겨울철새 탐조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순천만보전과 조영익과장은 "순천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을 계기로 순천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흑두루미의 날을 공식 지정할 계획이다"며 "도시확장과 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는 습지를 보전하고 한반도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2018년 출산증가율 전남 1위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저출산 극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혼·임신·출산의 사회적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한 결과 2018년 출생아 414명으로 전년 대비 47명이 증가하여 출생아 증가율 전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영광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최고 3,500만원 대폭 상향 지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영광군은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도록 청년일자리, 보육 및 거주문제,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서로 연계된 유기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김준성 군수는 "단순한 출산율 증가를 넘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폭넓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광양시가 올해에도 136개 모든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안심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6,190명과 보육교직원 1,428명 등으로 보장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담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등 총 11종에 이른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신청사 시민참여 디자인단 모집

순천시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지난 25일) 이전부터 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운영기간 중 디자인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일반인을 비롯해,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국내 대학교수·건축사·기술사 및 순천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단은 신청사의 건립 비전과 컨셉, 규모와 배치, 도입시설, 기존 청사 활용방안 등 신청사 건립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건립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결과는 3월 6일 전후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3월 초까지 시민참여 디자인단 구성을 마치고, 6월까지 4개월 동안 신청사 건립 밑그림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갈 계획이다"며 "신청사 건립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군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보성군은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군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3월 15일까지 3주에 걸쳐 '군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정보화교육은 보성권역과 벌교권역으로 나눠 과정별 매일 2시간씩 5일간 진행하며, 보성권역은 정보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보성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벌교권역은 벌교컴퓨터학원에서 진행한다.

강좌는 스마트폰 기초, SNS, 엑셀, 한글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특히, '스마트폰' 과정은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려워 전화 용도로만 사용하던 관내 어르신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조기 마감 됐다.

스마트폰 기초에서부터 SNS과정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 능력을 높여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2019 유기농 실천 순회교육 개최

구례군은 2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례군 친환경농업인들과 소통농정 구현 및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등을 위하여 2019 유기농 실천 순회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순회교육은 농업인, 공직자 등이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방선호 유기농 명인의 특강,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교육, 친환경 인증제도의 이해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구례군은 2017년 4월 19일 군민의 날 공설운동장에서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을 갖고 관내 전 경지면적을 친환경농업화 할 계획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구례군의 지속적인 노력이 농업인의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박진호 기자